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브릿지경제

산업부, 2018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정길준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8-11-21 11:0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18 나노융합성과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나노관계자 200여명

이 참석해 나노분야 정부정책과 관련 산업의 전망 및 성과 등을 발표한다. 또 업계 유공자에 포상 등도 진행한다.

이날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나노융합 분야 신규 사업의 기획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며, 나노기술 및 산업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인산 책임연구원이 '항암면역치료와 나노기술'을 주제로 항암면역치료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최신 나노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성과 발표 세션에서는 2018년 10대 나노기술로 선정된 나노융합 분야 신기술 및 제품화 성과로 (주)엘캠텍의 문상봉 대표이사가 기존 제품 대비 수소발생 효율이 90% 이상인 고효율 수소발생기 산업화 성과를 공유한다. 또 한세광 포항공대 교수는 근적외선과 나노입자를 이용해 상처나 찢어진 피부를 신속하게 접합할 수 있는 광의약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나노영챌린지 2018'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려대팀은 '시·공간 제약 없이 의료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이종 나노입자 기반의 투명 부착형 유연 변형 측정 센서'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이어 산·학·연에서 나노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이 산업부 장관상과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문상봉 (주)엘캠텍 대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최선용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본부장, 송영례 경상북도 주무관이 산업부 장관상을, 송영재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충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장, 장문규 한림대학교 교수, 고려대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는다.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국장은 "나노융합산업은 파급성과 확장성이 매우 큰 혁신성장의 엔진"이라며 "나노기술과 주력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